



[채권] 백운민 수석연구위원

3771-9175

yoomin1983@iprovest.com

매파적 질서의 시작

연준,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다만, 실제 인상에는 신중할 것

6월 FOMC 이후 시장은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빠르게 반영했지만, 당사는 연준의 연내 기준금리 동결 전망을 유지.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여전히 제약적인 영역에 위치. 금리인상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부담을 감안하면, 연준이 실제 긴축 전환에는 신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여기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국제유가 하락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물가 상방 리스크도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변수

7월 금통위, 기준금리 25bp 인상하고, 매파적인 스탠스 유지 예상

7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75%로 25bp 인상될 것으로 예상. 당사는 한국은행이 연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 기준금리를 3.00% 수준까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유지.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이와 관련된 테일 리스크(tail risk) 우려가 빠르게 완화되는 가운데, 다소 과도하게 반영되었던 기준금리 인상 기대도 일부 되돌림이 진행. 필자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원만하게 유지될 경우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추가적으로 되돌려질 수 있다고 예상. 다만, 이를 감안해도 물가 안정에 대한 한은의 의지를 감안하면 여전히 연내 2회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투자전략: 우호적인 재료 부재 속 보수적인 스탠스 유지

시장금리는 6월 초 급등분이 일부 되돌려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2~3회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를 반영한 수준.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해도 레벨은 매력적인 수준이지만, 중동 리스크 완화에도 채권시장에 우호적인 재료가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상황. 투자전략 관점에서는 캐리를 고려한 매수 접근 정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듀레이션은 중립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수적인 스탠스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

Issue Check: 7월 BOJ, 금리동결 예상. 연내 한 차례 추가 인상 기대는 유지

당장 7월 BOJ에서 기준금리는 현 수준(1.00%)에서 동결될 것으로 예상. 그러나 인플레이션, 환율 등을 고려하면 BOJ가 연내 한 차례 정도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나서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먼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공급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일부 완화될 수 있지만, 아직 물가에 대한 경계를 늦추기는 이른 상황. 여기에 6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추가 금리인상의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 우치다 부총재도 환율 자체를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환율이 펀더멘탈에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특히 과거 대비 물가에 대한 영향이 커졌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

[Compliance Notice]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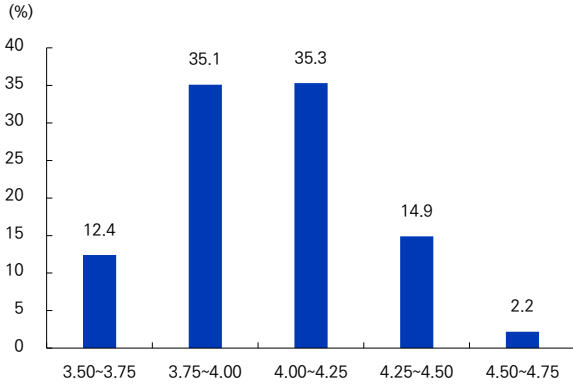
이 조사항목은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항목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적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논문 등에 학술적인 목적으로 인용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에 먼저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당사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고객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습니다. 당사 연구원 사칭 사기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 3 Key Chart
- 5 연준,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다만, 실제 인상에는 신중할 것
- 9 7월 금통위, 기준금리 25bp 인상하고, 매파적인 스탠스 유지 예상
- 13 투자전략: 우호적인 재료 부재 속 보수적인 스탠스 유지
- 14 Issue Check: 7월 BOJ, 금리동결 예상. 연내 한 차례 추가 인상 기대는 유지
- 16 Appendix: Chart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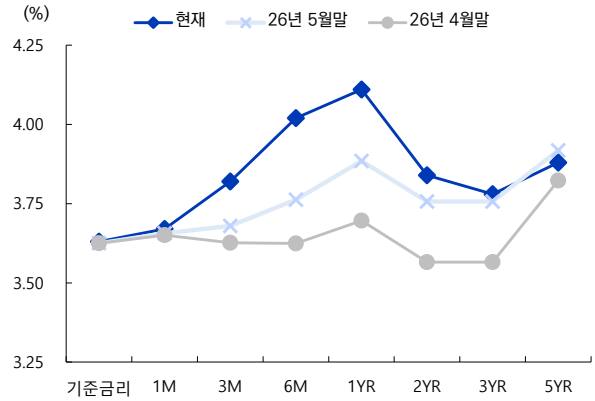
Key Chart

[도표 1] Fed Watch, 2026년 12월 기준 통화정책 확률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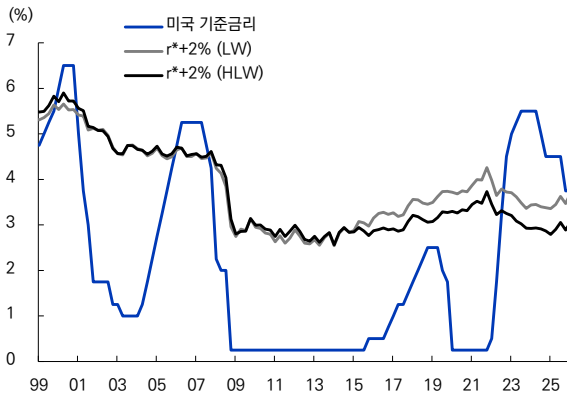
자료: FedWatch,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 연준, 내재 정책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 연방기금 목표금리와 미국 r*+ 물가목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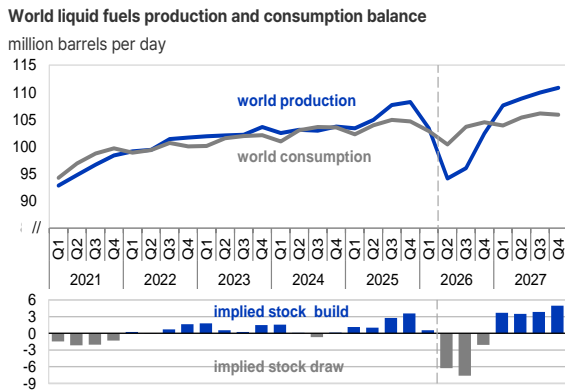
자료: Federal Reserv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 미국 연방기금 실효금리와 Proxy 금리 추이



자료: San Francisco Fed,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 미국-이란 종전 합의로 원유 수급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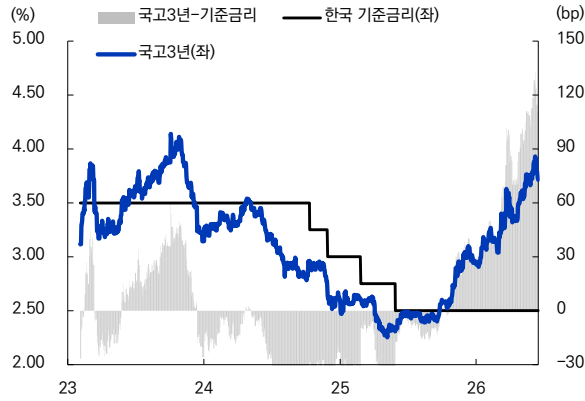
자료: EIA,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 미국 휘발유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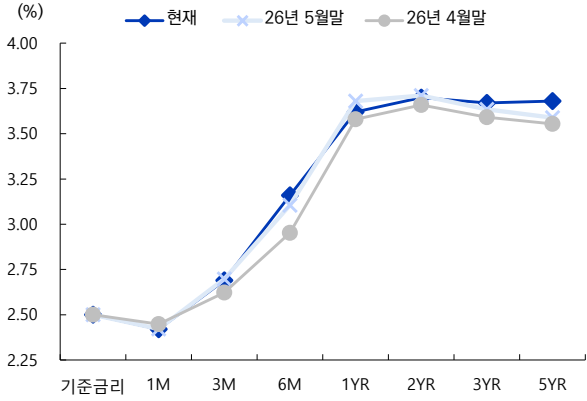
자료: EIA,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7] 시장금리는 2회 이상의 금리인상 기대를 반영



자료: 인포맥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8] BOK, 내재 정책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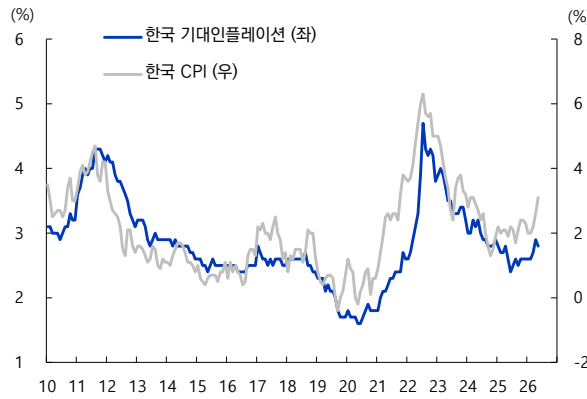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9]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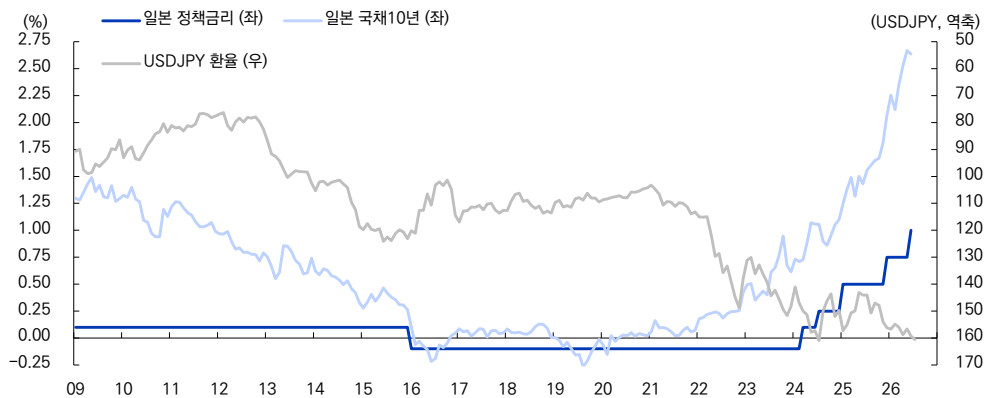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주: 박스형 점선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 시기. 원형 점선은 외국인 자금이 크게 이탈한 구간

[도표 10] 한국 소비자물가 및 기대인플레이션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1] BOJ 통화정책과 일본 국채금리, 환율 변화 추이



자료: BOJ,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매파적 질서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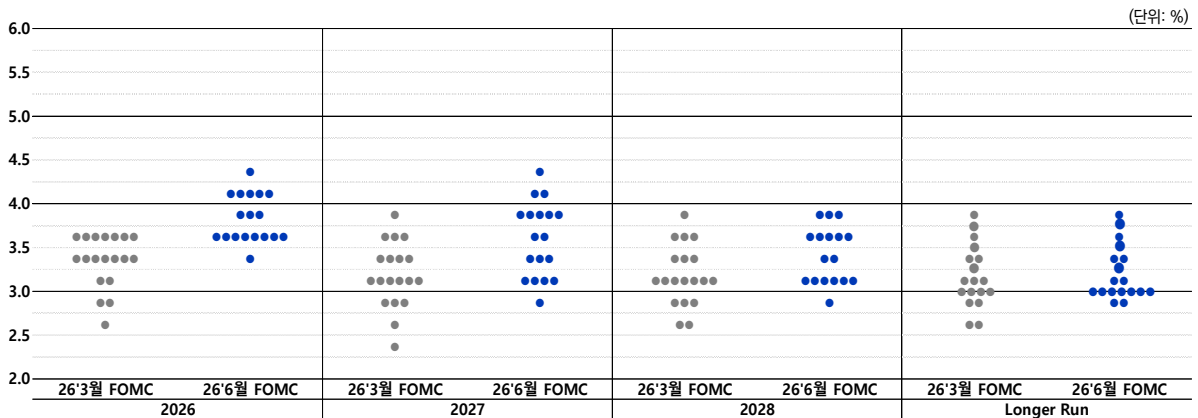
연준,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다만, 실제 인상에는 신중할 것

6월 FOMC에서 연방기금 목표금리는 시장의 예상대로 3.50%~3.75%에서 동결됐다. 투표권을 보유한 연준위원 12인 모두가 이번 금리결정에 동의했다. 워시 연준의장의 첫 FOMC 회의 이후 공개된 성명서는 이전에 비해 매우 간결해졌으며, 특히 통화정책 경로를 가늠해볼 수 있는 포워드 가이드 성격의 문구들은 모두 삭제되었다.

연준은 금번 성명서를 통해 중동 분쟁에 따른 높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플레이션은 에너지를 포함해 특정 섹터의 가격 상승을 유발한 공급충격을 일부 반영하면서 여전히 목표 수준(2%)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연준은 금리 점도표를 통해 통화정책 경로가 금리인하에서 금리인상으로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2026년 금리 점도표 중간값은 3.4%→3.8%로 상향 조정됐으며, 2027년, 2028년 중간값은 각각 3.1%→3.6%, 3.1%→3.4%로 상향 조정했다. 케빈 워시 연준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본인은 금리 점도표와 관련해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도표 12] 2026년 3월, 2026년 6월 금리점도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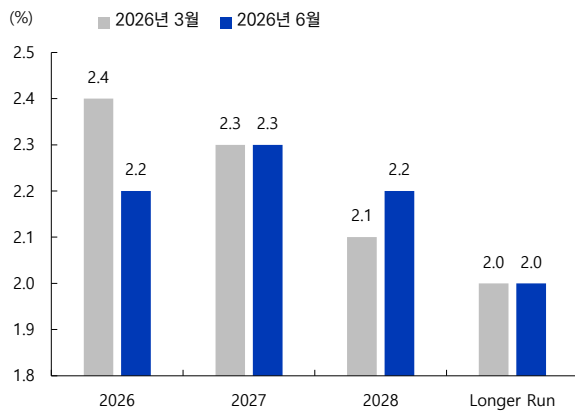


자료: Federal Reserv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연준은 6월 경제전망 자료(SEP)를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2.2%로 하향 조정하고, 2028년 전망치를 2.1%→2.2% 상향 조정했지만, 전반적으로 성장 경로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을 예상했다. 또한 고용과 관련해서도 올해 실업률 전망치가 4.4%→4.3%로 소폭 하향 조정된 점을 제외하면 기존의 전망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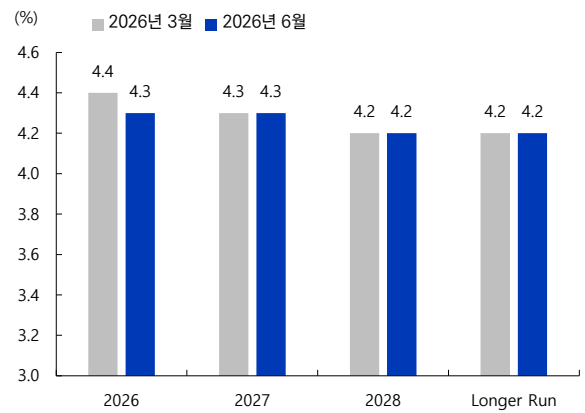
반면에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중동 전쟁으로 높아진 물가 상승 영향을 반영해 올해 헤드라인과 근원 PCE 전망치를 각각 2.7%→3.6%, 2.7%→3.3%로 큰 폭 상향 조정했다.

[도표 13] 2026년 6월 SEP: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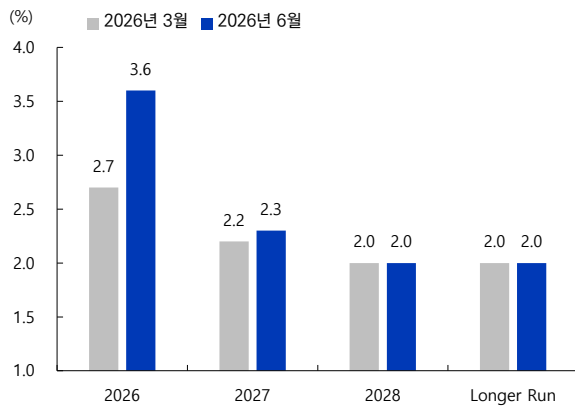
자료: Federal Reserv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4] 2026년 6월 SEP: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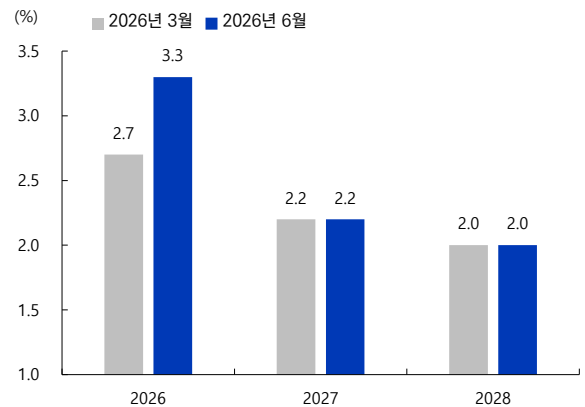
자료: Federal Reserv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5] 2026년 6월 SEP: PCE 물가



자료: Federal Reserv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6] 2026년 6월 SEP: 근원 PCE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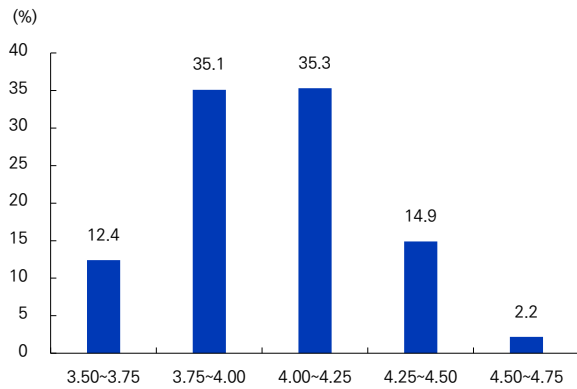


자료: Federal Reserv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6월 FOMC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를 예측할 수는 있는 정보들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연준 통화정책 운영의 핵심은 물가 안정이라는 점이다. 워시 연준의장도 포워드 가이드성 발언을 최대한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물가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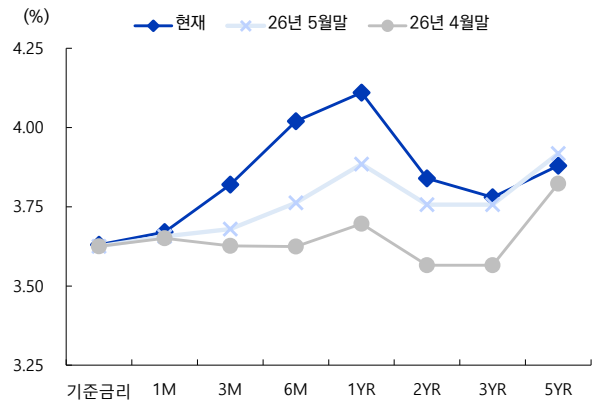
전술했듯이, 연준은 경제전망(SEP)을 통해 올해 물가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높아진 인플레이션 압력을 제어하기 위해 연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6월 FOMC 이후 시장도 연내 금리인상 기대를 빠르게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FedWatch 기준으로 올해 한 차례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도표 17] Fed Watch, 2026년 12월 기준 통화정책 확률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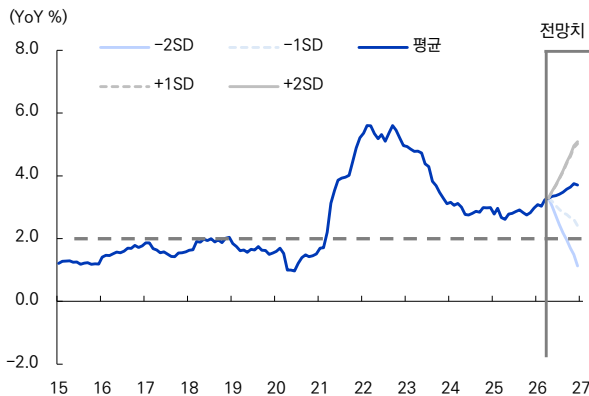
자료: FedWatch,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8] 연준, 내재 정책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9] 미국 근원 PCE 추이 및 전망



자료: Bloomberg, 미국 상무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0] 미국 미시건대 기대인플레이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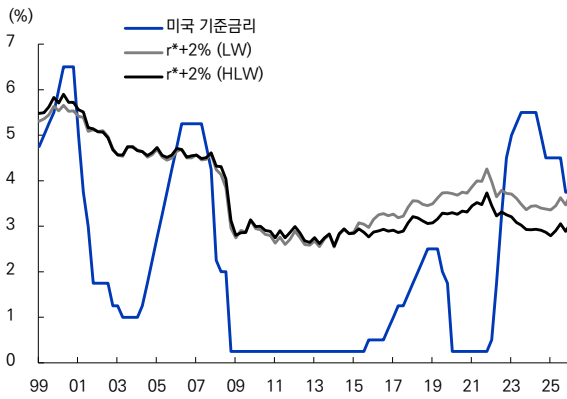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연준이 연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중립 수준을 소폭 상회하는 제약적인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위시 연준의장도 FOMC 기자회견에서 현재 연준의 통화정책은 다소 제약적인 영역에 위치해 있다고 언급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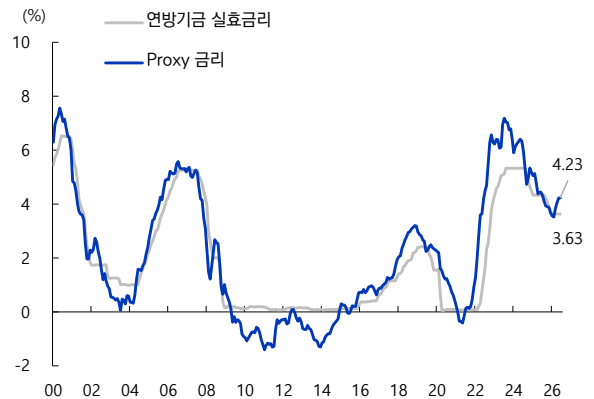
연준이 금리 점도표를 통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전술한 부분과 금리인상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부담을 고려하면 연준이 실제 긴축 전환에는 신중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일부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지만,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국제유가 하락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등 물가 상방 리스크 요인들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 부분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도표 21] 연방기금 목표금리와 미국 r*+ 물가목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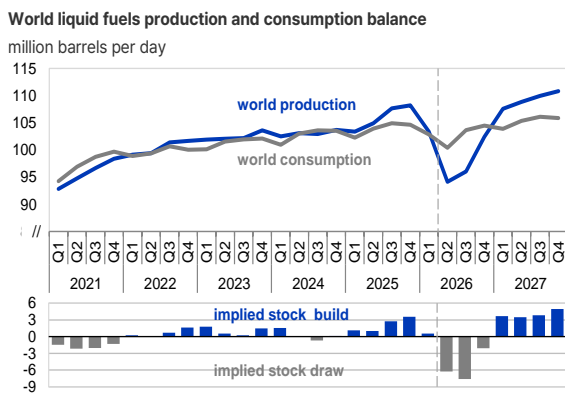
자료: Federal Reserv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2] 미국 연방기금 실효금리와 Proxy 금리 추이



자료: San Francisco Fed,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3] 미국-이란 종전 합의로 원유 수급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



자료: EIA,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4] 미국 휘발유 가격 추이



자료: EIA,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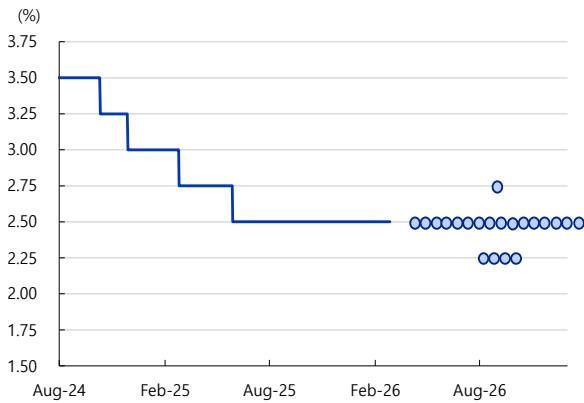
7월 금통위, 기준금리 25bp 인상하고, 매파적인 스탠스 유지 예상

7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75%로 25bp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사는 한국은행이 연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 기준금리를 3.00% 수준까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유지한다.

지난 5월 금통위는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2명의 금통위원이 25bp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개진하고, 금리 점도표에서도 인상에 대한 의견이 뚜렷하게 강화되면서, 향후 통화정책이 금리인상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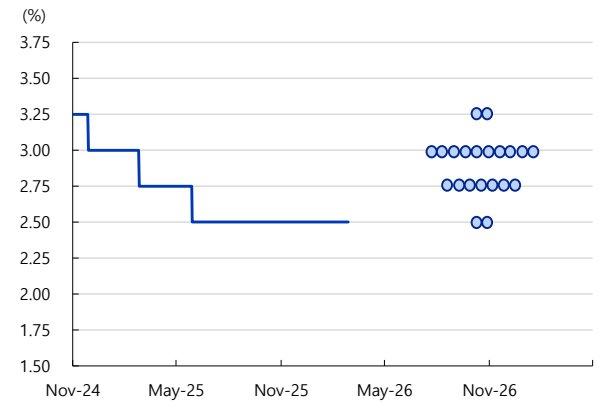
또한 한국은행은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물가(2.2% → 2.7%)와 성장률(2.0%→2.6%)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고, 통방문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다. 여기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기자회견담회에서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될 때는 딜레마가 있는데 이번에는 좀 예외로 물가, 성장, 환율, 부동산 등을 봤을 때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언급하면서 금리인상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도표 25] 2월 금통위 금리점도표 (6개월 후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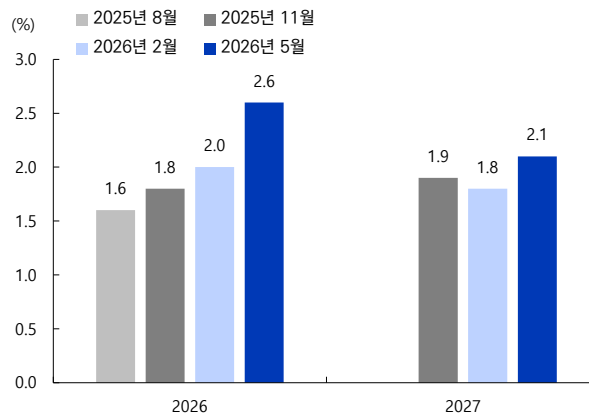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6] 5월 금통위 금리점도표 (6개월 후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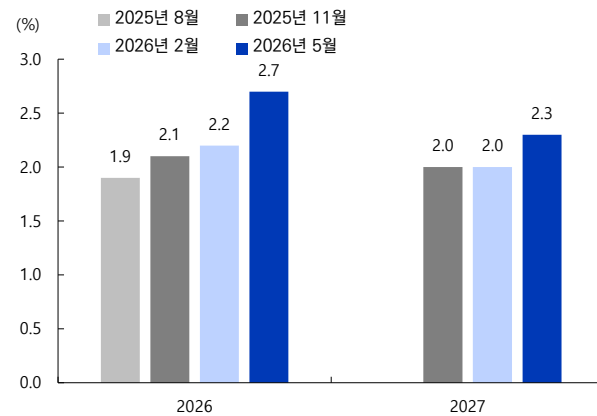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7] 한국은행, 국내 성장률 전망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8] 한국은행, 물가 상승률 전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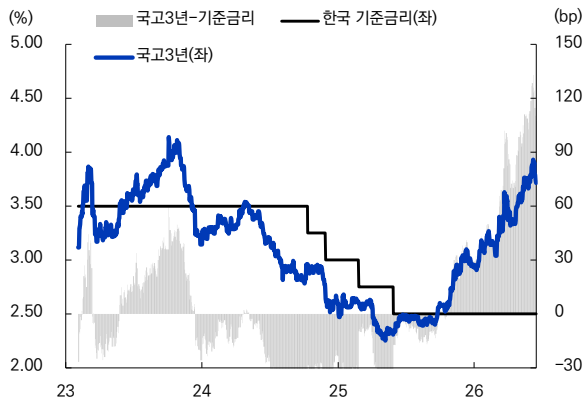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이와 관련된 테일 리스크(tail risk) 우려가 빠르게 완화되는 가운데, 다소 과도하게 반영되었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도 일부 되돌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필자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원만하게 유지될 경우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추가적으로 되돌려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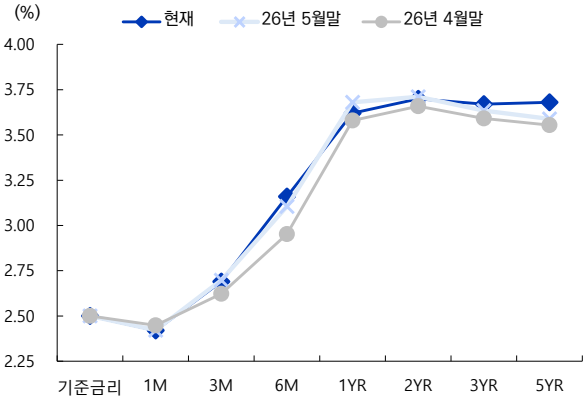
다만, 이전 자료에서도 언급했듯이, 중동 전쟁 이슈가 조기에 완화되어도 물가가 목표 수준까지 되돌려지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대인플레이션 차단과 환율 등 금융안정 리스크 대응을 고려하면 과도하게 반영된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일부 되돌려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연내 2회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신현송 총재도 지난 한국은행 창립기념식에 이어 최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도 물가 안정을 강조함과 동시에 “5월 전망 이후 저희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는 변화는 없다” 발언했고, 이수형 금통위원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분명 좋은 일이지만, 전쟁의 충격에서 경제가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면서 인상 경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

[도표 29] 시장금리는 2회 이상의 금리인상 기대를 반영



자료: 인포맥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0] BOK, 내재 정책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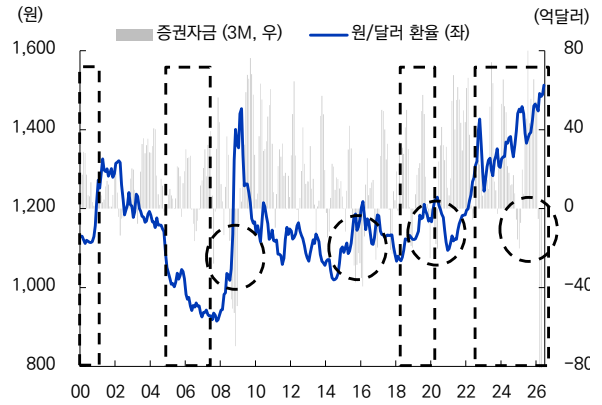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1] 미국-이란 종전에 합의



자료: 언론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2]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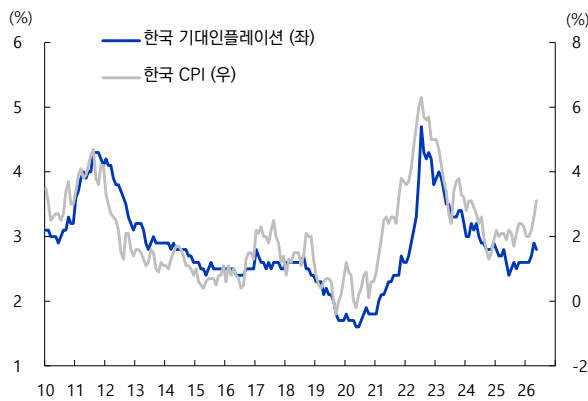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주: 박스형 점선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 시기. 원형 점선은 외국인 자금이 크게 이탈한 구간

5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 YoY 기록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급등세를 보인 국제유가가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반영된 결과다. 물론 전술한대로 최근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하면서 국제유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되돌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합의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고, 아직은 완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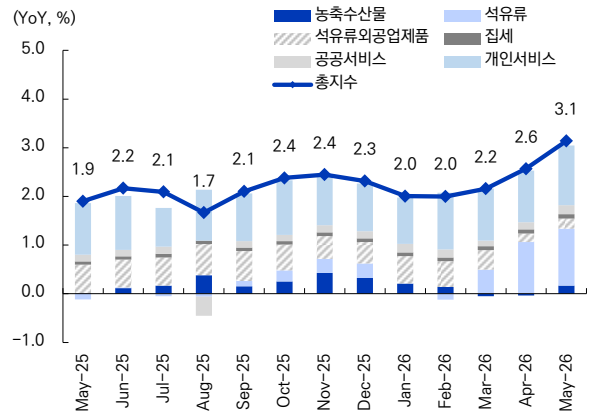
한국은행은 하반기에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 내외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중동 분쟁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급 측면에서의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는 있지만, 수요가 견조한 상황에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복귀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유가 상승의 직접 효과와 더불어 2차 파급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은 경계감을 나타냈다.

[도표 33] 한국 소비자물가 및 기대인플레이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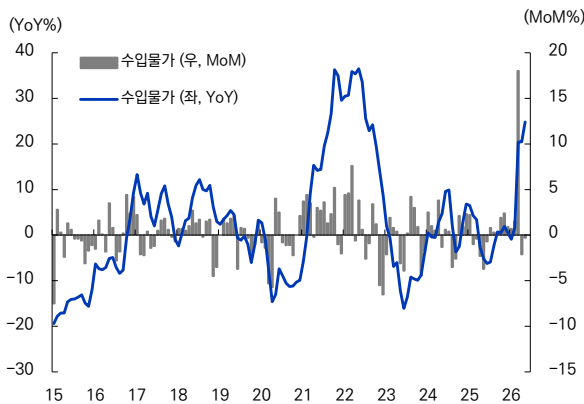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4]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여도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5] 한국 수입물가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6] 평균유가 상승률과 한국 소비자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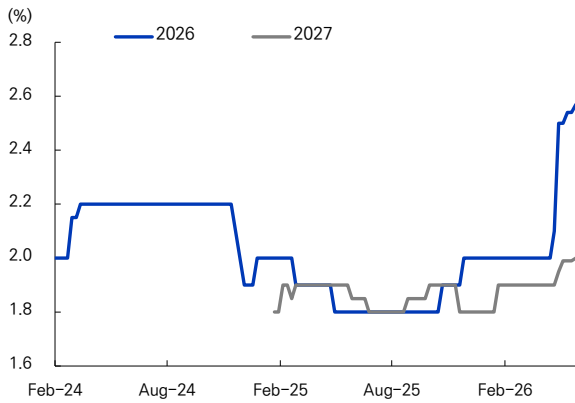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주1: 평균유가는 WTI, Brent, Dubai 유가 평균
 주2: 26.06 이후 유가 상승률은 평균 유가 80달러 가정

지난 1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후 올해 성장에 대한 눈높이도 크게 높아졌다.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으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5% 수준으로 높아졌다. 국내 경제성장은 수출 호조와 투자 개선이 견인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수출 강세가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도체 업황과 견조한 글로벌 AI 수요를 감안할 때, 당분간 수출 주도의 성장 모멘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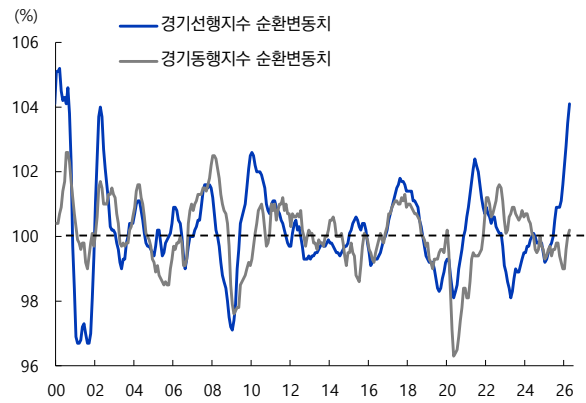
국내 소비도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내수는 핵심연령층과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구조적 개선 기대를 갖기는 어렵지만 정부의 정책 영향 등으로 하방 압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도표 37]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추이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8] 경기선행지수 및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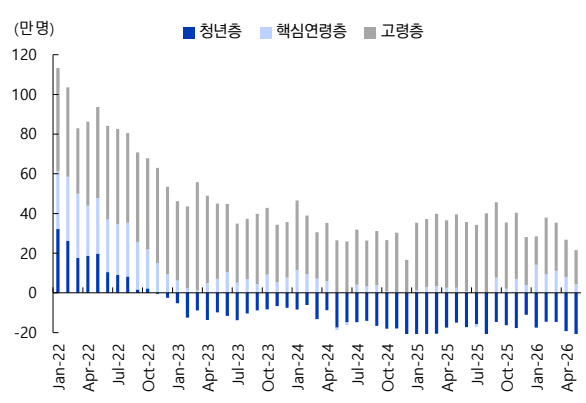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9] 한국 수출과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매출 증가율 전망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0] 한국 연령별 고용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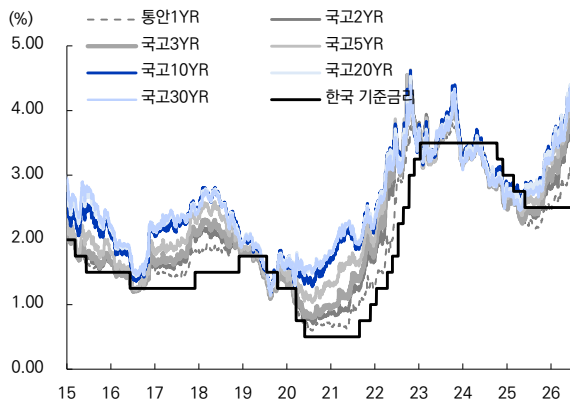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CEIC,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 우호적인 재료 부재 속 보수적인 스탠스 유지

시장금리는 6월 초 급등분이 일부 되돌리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2~3회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를 반영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뻥한 이야기이지만, 레벨만 놓고 보면,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해도 매력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하면서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부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편더멘탈, 수급, 환율 등 채권시장에 우호적인 재료가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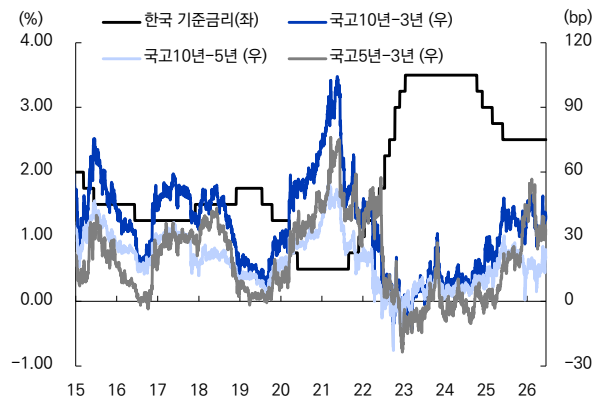
투자전략 관점에서는 캐리를 고려한 매수 접근 정도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듀레이션은 중립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수적인 스탠스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도표 41] 국고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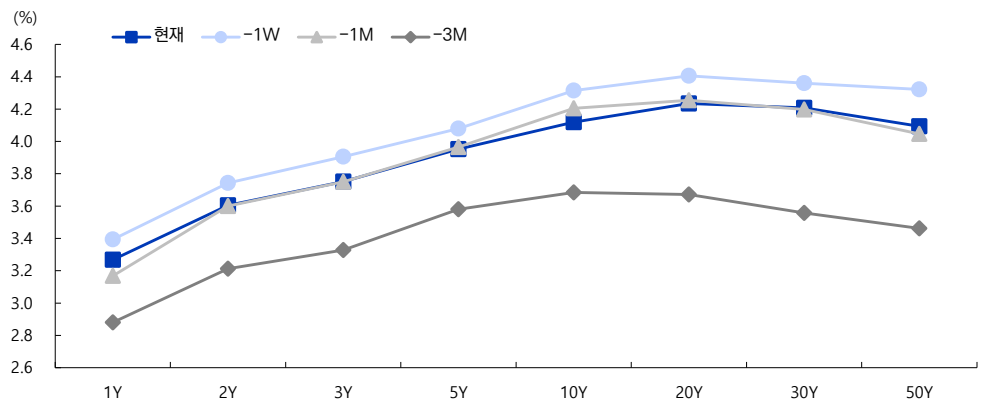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2] 국고채 금리 스프레드 추이



자료: 인포맥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3] 한국 기간별 일드 커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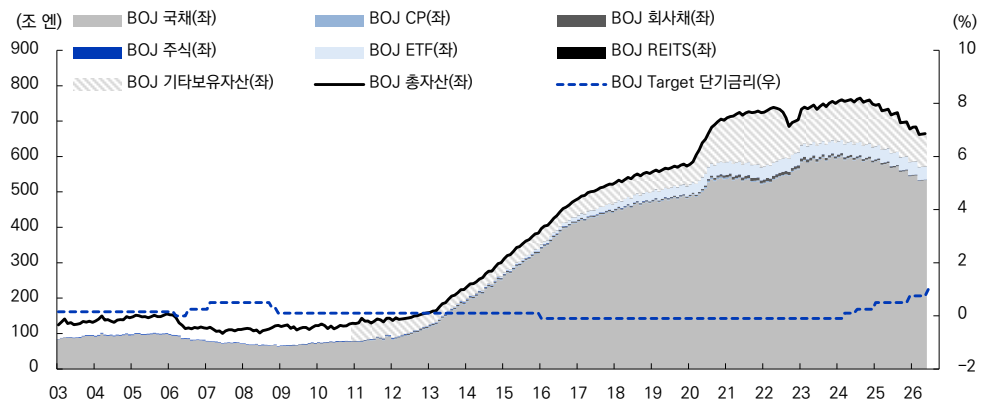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Issue Check: 7월 BOJ, 금리동결 예상. 연내 한 차례 추가 인상 기대는 유지

일본은행(BOJ)는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1.00%로 25bp 인상했다 (아사다 위원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 이로써 일본은행의 기준금리는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BOJ는 장기국채 매입과 관련하여 내년 3월까지의 기준과 같이 분기 2,000억엔 수준의 감액을 유지하고, 이후에는 매입 규모를 월 2조엔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우치다 부총재는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과거보다 낮아졌다고 평가하면서 물가와 관련해서는 상방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특히 기업간 거래에서 가격 전가가 다소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러한 부분이 소비자 단계에서 광범위한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기초적인 물가 상승률도 목표 수준인 2%를 상회할 위험이 더 커졌다고 언급했다.

[도표 44] BOJ 기준금리 및 대차대조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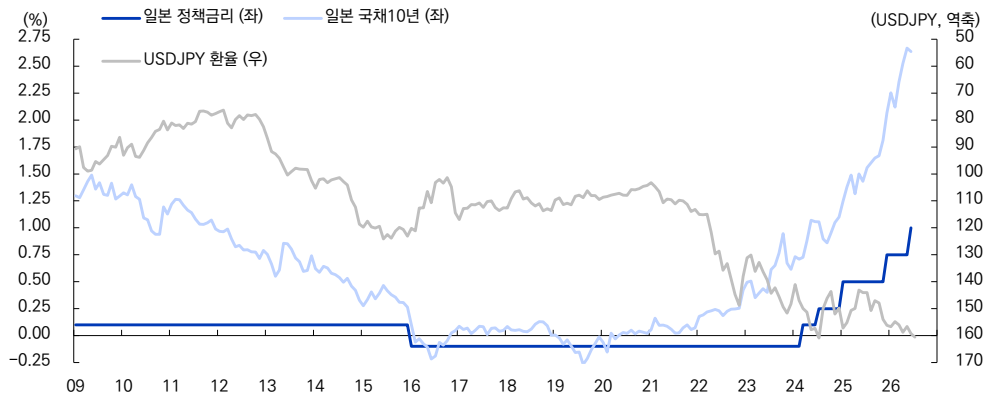


자료: BOJ,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당장 7월 BOJ에서 기준금리는 현 수준(1.00%)에서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환율 등을 고려하면 BOJ가 연내 한 차례 정도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나서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공급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일부 완화될 수 있지만, 우치다 부총재가 언급했듯이 다소 빠르게 진행된 기업간의 가격 전가가 결국은 소비자 단계의 품목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물가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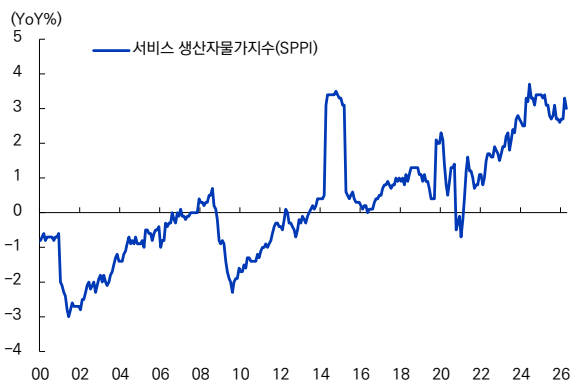
여기에 6월 BOJ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엔/달러 환율이 160엔을 상회하는 수준을 이어가는 등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추가적인 금리인상의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우치다 부총재도 환율 자체를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환율이 펀더멘탈에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특히 과거대비 물가에 대한 영향이 커졌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도표 45] BOJ 통화정책과 일본 국채금리, 환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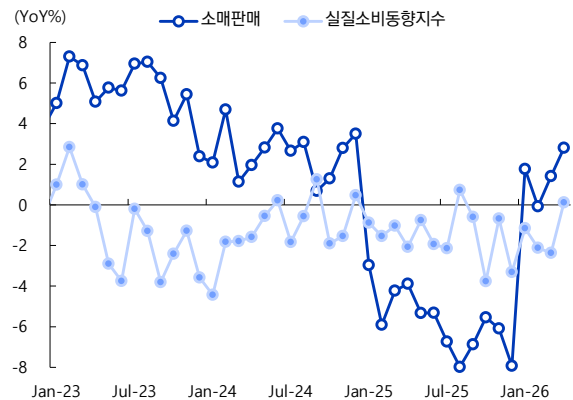
자료: BOJ,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6] 일본 서비스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자료: CEIC,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7] 일본 소매판매 증가율과 실질소비동향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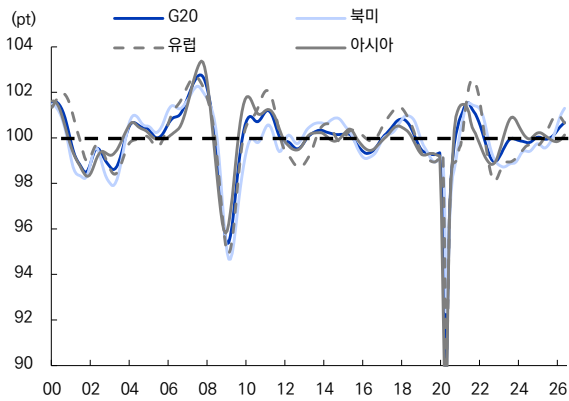


자료: CEIC,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Appendix. Chart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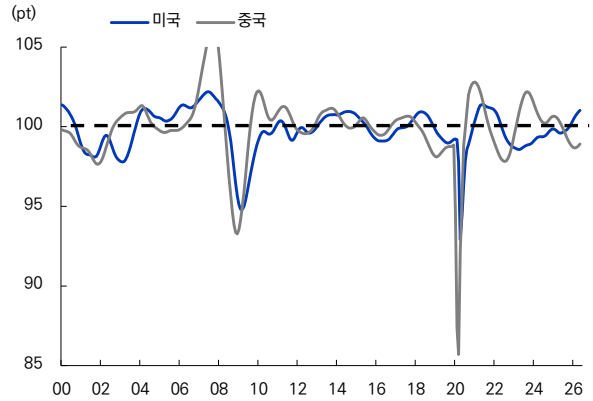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도표 48] 지역별 OECD 경기선행지수



자료: OECD,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9] 미국, 중국 OECD 경기선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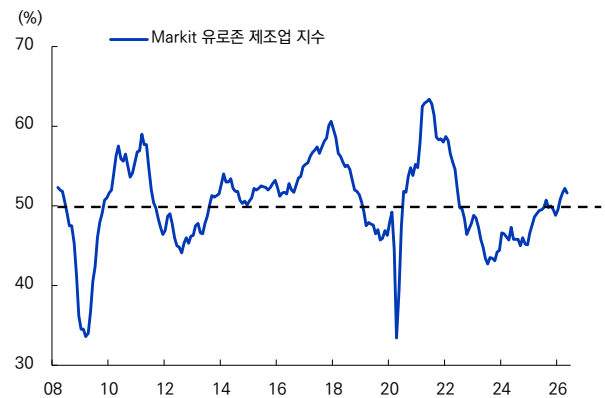
자료: OECD,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0] 미국 ISM 제조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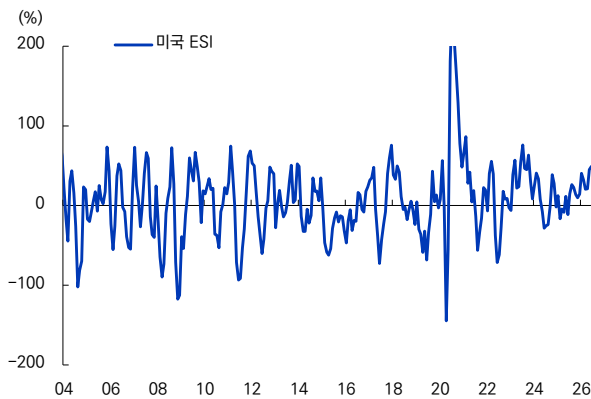
자료: ISM,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1] 유로존 제조업 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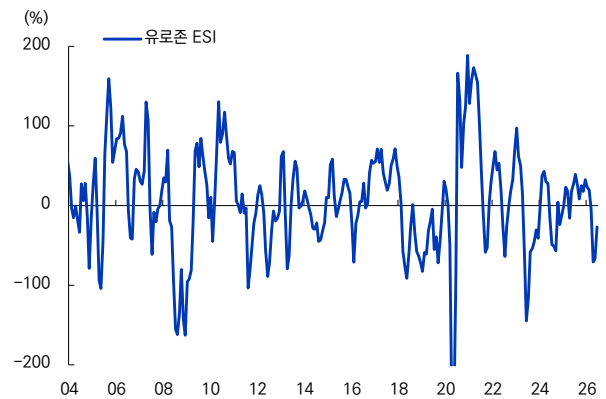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2] 미국 ESI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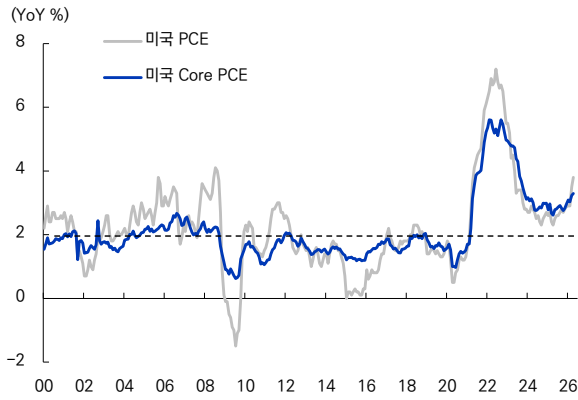
자료: Citigroup,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3] 유럽 ESI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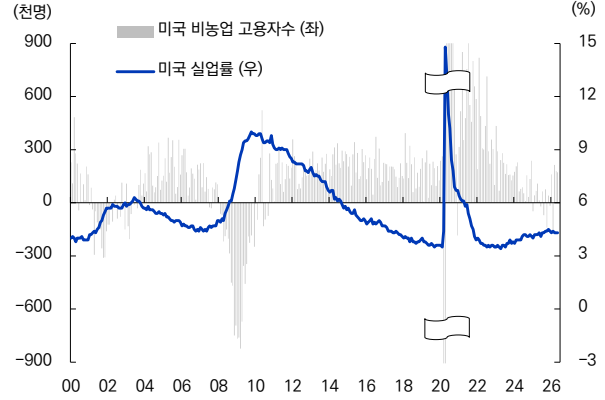
자료: Citigroup,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4] 미국 PCE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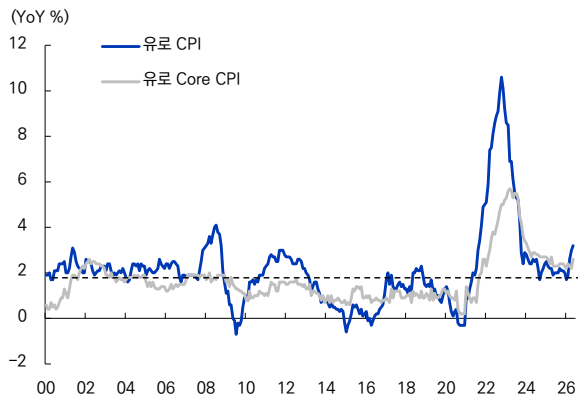
자료: BEA,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5] 미국 비농업 고용자수 및 실업률



자료: 미국 노동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6]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Eurostat,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7] 유로존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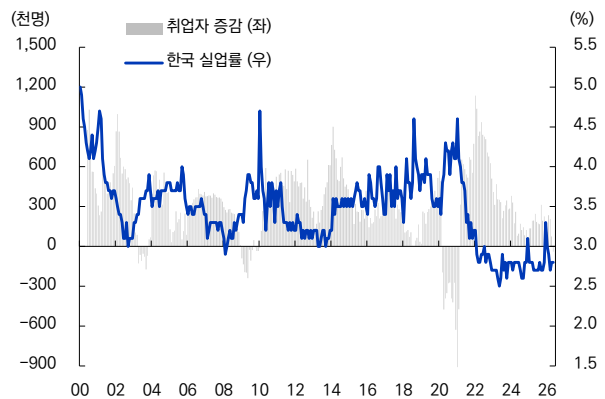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8]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국가데이터처,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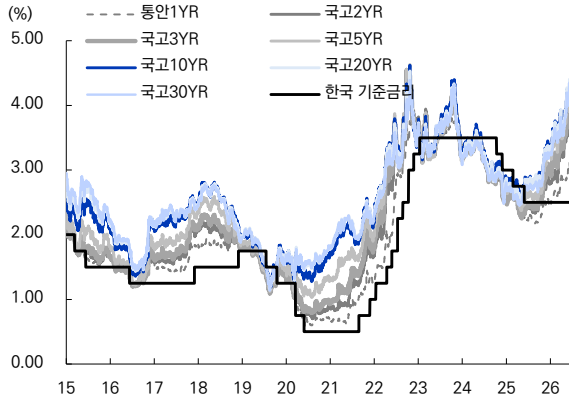
[도표 59] 한국 실업률 및 취업자수 증감



자료: 국가데이터처,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채권금리

[도표 60] 한국 기준금리 및 국고채 수익률



자료: 인포맥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1] 미국 기준금리 및 국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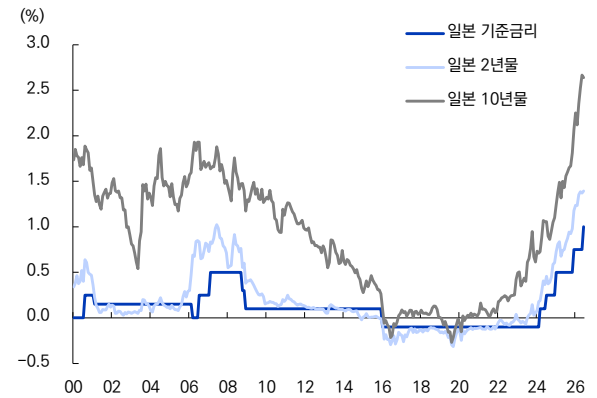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2] ECB 기준금리 및 독일, 프랑스 국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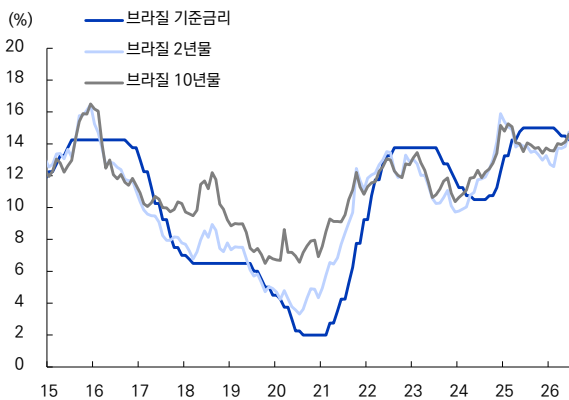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3] 일본 기준금리 및 국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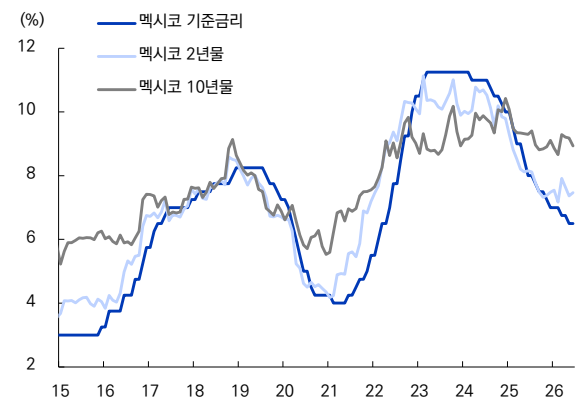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4] 브라질 기준금리 및 국채 수익률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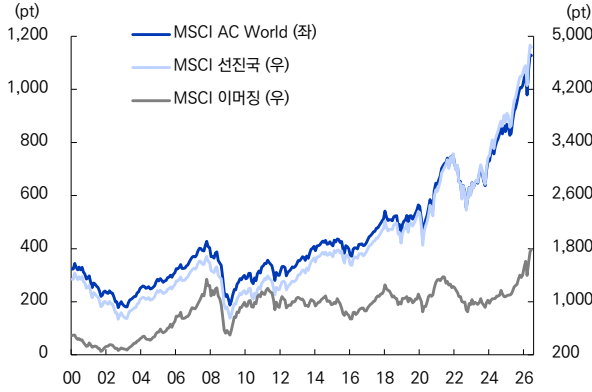
[도표 65] 멕시코 기준금리 및 국채 수익률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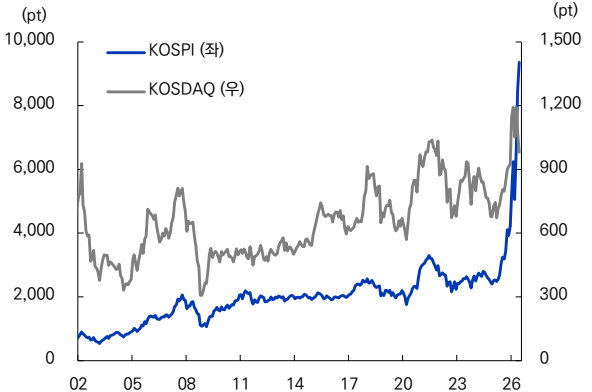
국내외 주가지수

[도표 66] MSCI AC World, 선진국, 이머징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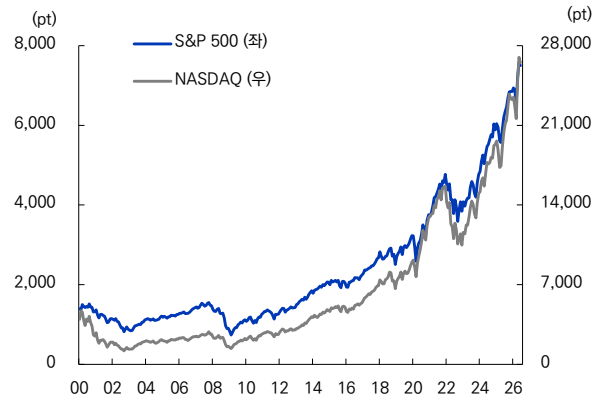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7] KOSPI, KOSDAQ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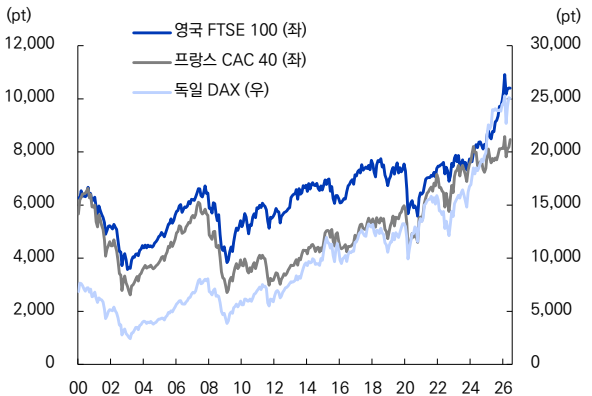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8] 미국 S&P 500, NASDAQ 지수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9] 영국 FTSE 100, 독일 DAX, 프랑스 CAC 40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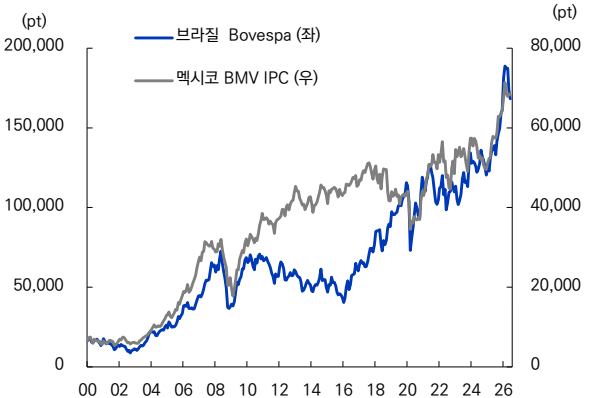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70] 일본 NIKKEI 225, 중국 상해종합지수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71] 브라질 BOVESPA, 멕시코 BMV IPC 지수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상품 및 환율 동향

[도표 72] 달러인덱스 및 유로/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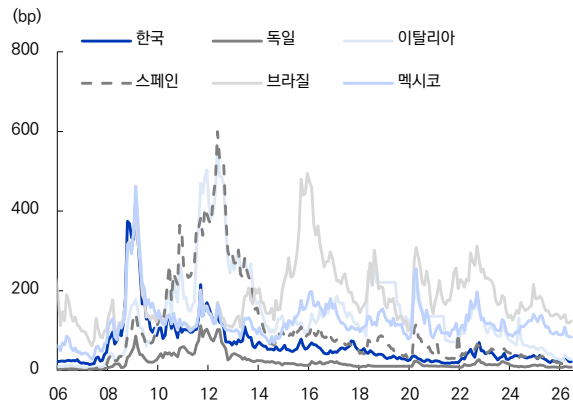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73]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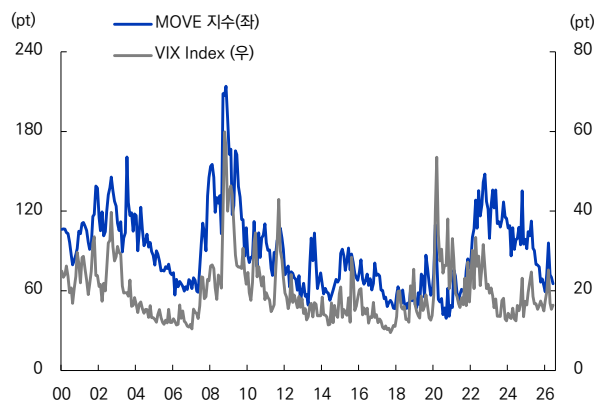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74] 글로벌 CDS 프리미엄(5Y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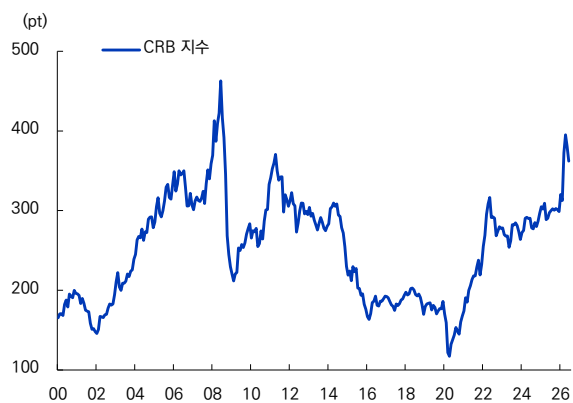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75] MOVE 및 VIX 지수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76] CRB 지수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77] 평균유가 및 금 가격



자료: Bloomberg,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주: 평균유가는 WTI, Brent, Dubai 유가 평균

7월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	화	수	목	금
		1	2	3
		만기 7679억 中 6월 비제조업 PMI 中 6월 제조업 PM 中 6월 RatingDog 제조업 PMI EU 6월 소비자물가(HICP) 잠정치	통안만기 3조 7900억 만기 8조 3060억 국채만기 2조 5000억 통안계정 만기 1000억 美 6월 실업률 美 6월 비농업고용 美 6월 기존주택매매 韓 6월 소비자물가동향 EU 5월 고용동향(실업률)	만기 2조 5337억 中 6월 RatingDog 서비스업 PMI EU 6월 구매관리자 지수
6	7	8	9	10
만기 2조 5456억 EU 5월 생산자물가 EU 5월 소매판매	만기 1조 5056억 통안만기 5000억 美 5월 무역수지 韓 1/4 분기 자금순환(잠정)	만기 2조 3508억 저준일 韓 5월 국제수지(잠정) 뉴질랜드 RBZN 통화정책회의	국채만기 2조 5000억 만기 6조 9421억 통안만기 7800억 통안계정 만기 1000억 中 6월 무역수지 中 6월 CPI 中 6월 PPI	만기 5조 2428억 국채만기 1조 1750억
13	14	15	16	17
만기 2조 8380억	만기 3조 6999억 통안만기 5000억 美 6월 CPI	만기 1조 9074억 美 6월 PPI 韓 6월 고용동향 韓 5월 통화 및 유동성 韓 6월 수출입물가 및 무역지수(잠정) EU 5월 산업생산 中 2분기 GDP 中 6월 산업생산 中 6월 소매판매 中 6월 고정자산투자 캐나다 BoC 통화정책회의	만기 4조 7360억 국채만기 2조 5000억 통안계정 만기 1000억 韓 금동원 美 6월 소매판매 EU 5월 무역수지	만기 4조 8822억 美 6월 산업생산 美 6월 신규주택착공
20	21	22	23	24
		韓 2025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韓 6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韓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ECB 통화정책회의	EU 7월 구매관리자 지수(잠정치) 日 6월 CPI
27	28	29	30	31
美 6월 내구재수주	美 5월 S&P/CS 주택가격지수 美 6월 소비자신뢰지수 韓 6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韓 7월 소비자동향조사	美 FOMC	美 2분기 GDP 美 6월 개인소비지출 韓 7월 BSI 및 ESI EU 2분기 GDP(잠정치) EU 6월 고용동향(실업률) EU 7월 경기기대지수	韓 6월 산업활동동향 日 BOJ EU 7월 소비자물가(HICP) 잠정치

자료: Bloomberg, 본드웹, 연합인포맥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 주1: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2: 현지시간 기준